

### 2011 Census 경제총조사

# ‘조사’하는 건지 ‘수사’하는 건지...

## 7월 복수노조 허용 산업계 ‘경계 태세’

광주 북구에서 화원을 운영하는 서모(36)씨는 지난 31일 광주시 북구청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통계청이 지난달 23일부터 실시 중인 ‘2011 경제총조사’와 관련된 조사원의 전화였다. 조사원은 “한 달 매출은 얼마나 되느냐?”, “직원 수와 건물 임대료는 어떻게 되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경제총조사에 관해 처음 전화를 받은 서씨는 조사원의 다짜고짜 ‘영업비밀’ 등을 묻는 갑갑(?)적인 태도에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자 조사원은 “답변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통계청의 ‘2011 경제총조사’가 열흘이 지나면서 일부 조사원의 갑갑한 태도로 인해 사업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사업주들은 총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거나, 자칫 속삭(?)하게 답변했다가 조사

후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등 ‘경제총조사’와 관련해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처럼 우리

광주와 전남·북 제주지역까지 관할하는 호남지방통계청은 광주 591명, 전남 858명, 전북 811명, 제주 282명 등 총 2600명의 조사원을 고용, 각 지자체에 위탁해 조사를 벌

란 기대가 높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사원들의 불편(?) 질문에 사업주들의 비협조가 이어지면서 조사에 애를 먹는 것이 사실이다.

만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생각보다 빠른 진도를 보였지만 아직도 조사에 비협조적인 업체들이 많다”며 “결과가 집계되면 국민 모두 쓸 수 있는 자료인 만큼 사업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1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분포, 고용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우리나라 모든 사업체를 동일시점에 동일된 기준으로 조사하는 경제분야 총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산업 중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19개 산업의 모든 사업체이며 조사항목은 15종, 각 20개 내외 항목이다. 이달 조사가 완료되면 2012년 5월까지 내검을 거치고 결과는 2012년 7월 발표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영업비밀 묻고 답변 거부하면 “과태료 물리겠다” 일부 조사원들 강압적인 태도... 사업주 “불쾌해” 호남통계청 “국민 모두가 쓸 자료 적극 협조를”

나라 경제규모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일 뿐, 세금부과와 과태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특히 많은 사업주가 오해하는 매출과 영업 통계 프로젝트로, 조사를 실행하는 조사원만 전국적으로 2만 2000명, 모두 5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조사가 완료되면 한국의 ‘경제 대동여지도’가 완성될 것이

이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대상기업 중 40% 이상의 조사를 마쳤다. 경제총조사는 이달 24일까지 전국 330만 사업체를 전수조사하는 대형 통계 프로젝트로, 조사를 실행하는 조사원만 전국적으로 2만 2000명, 모두 5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조사가 완료되면 한국의 ‘경제 대동여지도’가 완성될 것이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일부 조사원들이 조사원 교육과정에서 오해를 해 과태료 얘기를 꺼낸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사업주가 끝까지 조사를 거부할 경우, 통계청으로서도 강제할 방법은 없을 뿐더러 사업주들이 의심하는 세금 문제도 국제청과 관련된 것이고 통계청은 철저히 통계자료로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산업계가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지난해 개정 발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한 기업에 여러 노조를 만들 수 있는 복수노조제가 시행된다. 대다수 기업은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지만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신규 노조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없는지 예외적으로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삼성, ‘무노조경영’ 원칙 무너지나 = 삼성그룹은 오랜 원칙으로 삼아온 ‘무노조 경영’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원 복지 등을 강화해 ‘노조가 필요없는 회사’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조사가 완료되면 2012년 5월까지 내검을 거치고 결과는 2012년 7월 발표된다.

인력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가능성은 있다. 현대기아차 사측은 비생산직 인력이 추가 노조를 설립할 가능성과 이들의 요구사항 및 쟁점을 조사하는 선에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조선·중공업 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우조선해양은 복수노조가 결성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인사제도에 조직운영체제를 다시 점검하면서 더 많은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야겠다는 계획이다.

◇건설·유통업계 “원래도 없었는데 별일 있겠나?” = 건설업계는 지방과 해외에 사업장이 흩어져 있어 노조 활동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이 저조하다. 현대·대우·GS건설 등 몇몇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면 애초에 노조가 없는 곳도 많아 복수노조제 시행은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분위기다. 유통업계에서도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 온 신세계와 CJ그룹 등은 복수노조의 허용이 별 의미를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총, 상황별 대응시나리오만 들어야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조합의 분리와 신규설립, 단체교섭 구조의 재설정, 법률상 분쟁 등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자가 자신의 지지세를 바탕으로 별도의 노조를 만들거나 개인의 인사 불만, 해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 해결형’ 노조도 생기는 등 다양한 형태의 노조가 난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노조 사업장’으로서 삼성의 대표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조선·중공업 “기존 노조가 꼭 잡았는데...” = 자동차 업계는 생산직을 중심으로 한 기존 노조가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어 노조가 분열되거나 소규모 노조가 추가로 결성되기는 어려운 풍토다. 다만 지금까지 노조원으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일부 관리직이나 연구소

◇경총, 상황별 대응시나리오만 들어야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조합의 분리와 신규설립, 단체교섭 구조의 재설정, 법률상 분쟁 등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자가 자신의 지지세를 바탕으로 별도의 노조를 만들거나 개인의 인사 불만, 해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 해결형’ 노조도 생기는 등 다양한 형태의 노조가 난립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 쫄그라드는 코스닥

### 자동차 화학 정유 투자 쏠려 관심 밖 5월 거래량 6년여만에 최저치 기록

유가증권시장의 상승장을 주도해 온 차·화·정(자동차, 화학, 정유)에 대한 몰림현상으로 코스닥시장은 투자자들의 관심 영역밖에 놓이면서 급속히 쫄그라들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월 코스닥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3억 4605만주로 지난 2004년 12월(2억 9924만주) 이후 6년여만에 최저 수준

을 기록했다. 같은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2652억원으로 2008년 12월(1조2817억원) 이후 가장 적었다. 올해 1~4월 일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6억주, 2조원 이상을 유지했으나 5월 들어 반토막난 셈이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거래가 활발한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다. 매수든 매도든 상관없이 거래가 많이 일어날수록 수치는 커진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 시장이 그만큼 ‘위축’됐다는 걸 의미한다. 4~5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차·화·정 위주로 매매가 활발했고 전기전자(IT) 등 그 외의 업종은 소외되는 업종 몰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차·화·정의 날개를 달고 코스피가 고공행진하는 동안 IT 관련 종목이 대부분인 코스닥은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코스닥지수는 3일 현재 476.10으로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이다. 지난 3월 중순 일본 지진 직후(480~490)보다도 상황이 좋지 않다.

/연합뉴스



### 교복 입고 ‘추억의 교실’로

이날 그동안 진행했던 공연과 이벤트를 총집합, 다양한 행사를 선보여 고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최근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 열린 ‘추억의 스페셜 파티’에 참가한 고객들이 70년대 교복을 입고 추억의 교실에 앉아 즐거워하고 있다. 신세계 백화점은

(광주 신세계 제공)

### 벤츠코리아 전 차종 판매값 1.3% 인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다음달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3일부터 대부분 차종의 판매가격을 평균 1.3%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클래스(9150만원)와 GLK클래스 기본모델(5990만원)을 제외한 전 모델이 50만원에서 최대 540만원 인하된다. M클래스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돼 수입되고 있고,

/연합뉴스

### 소상공인지원센터 중기청이 일괄 관리

전국 지자체에서 따로 운영하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소기업청이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중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권한은 중기청장이 각 시·도지사에 위임한 것으로 돼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는 중기청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지원원으로 운영권이 이양된다.

중기청 김일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제껏 지역별 특색을 살린 정책을 펼치고자 운영권을 지자체에 맡

겨 왔으나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오히려 지역별로 균등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중기청에서 계획·예산 담당하는데 집행은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들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펼치고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진단 등 컨설팅, 상권분석, 창업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로도복권 (제444회)		
당첨번호	2등번호 숫자	
11 13 23 35 43 45 17	07	
등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1 6개 숫자 일치	4,154,188,625	3
2 5개 숫자+번호 일치	79,888,243	26
3 5개 숫자 일치	1,635,508	1,270
4 4개 숫자 일치	50,000	65,611
5 3개 숫자 일치	5,000	1,087,892

####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실분과 연소실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현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복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 나주혁신도시 전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상업용지    주차장용지

이주주택지    협의주택지

####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보물창고 (061)333-7077

010-3153-4242

위치 : 금천면사무소 맞은편

####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내광사광주전남지사옆 유리빌딩 501

### 전원주택지 급매

남구 대지동(대촌부근) 일반주거지역, 마을내 나대지

886㎡(268평) 매매가 9800만원 (3.3㎡당 365,000원).

#### 소촌공단내 공장매매 및 임대.

- 광산구 소촌동 소촌공단내 공장용지(2,486.5㎡(752평), 공장1,120㎡ (338평),매매가 11억3,000만원, 임대시 보증금 5,000만원 월500만원).
- 광산구 소촌동 소촌공단내 공장용지 660㎡(200평), 공장264㎡(80평), 매매가 3억.

#### 화순도곡 전원주택지

- 화순군 도곡면 환산리 도곡면소재지부근, 6,745㎡(2,040평),관리지역, 현재임야, 2차선 포장도로 접합, 매매가 3.3㎡당 16만원.

#### 자연녹지

- 서구 매월동 서광주역 앞 전.2,590㎡(783평), 3.3㎡당 98만원.
- 광산구 신월동 보훈병원앞 9,722㎡(2,941평) 3.3㎡당 58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 서구 세하동 임야, 면적 3,835㎡(1160평),4m,진입로, 매매가 3.3㎡당 65만원, 자연녹지, 현재 임야.

#### 무동산 전원주택지

- 북구 화일동 대지433㎡(131평), 전.임.1,994㎡(603평) 구 주택2동, 매매가 1억6,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 상무지구 나대지(업무용지)

- 상무지구 시청앞 부근 20m 도로접합, 993㎡(300평), 매매가 18억, 회사사무, 업무용빌딩.

010-3616-8698. 062-233-2222

#### 중앙공인중개사

### 상가건물

- ☆.보증금 : 10억원 월세 : 4,300만원(부가세별도) 매매가 : 73억원
- ☆.보증금 1억 월세 2,400만원(부가세별도) 오피스텔 매매가 : 32억원
- ☆.보증금 : 8억2천 월세 : 1,330만원(부가세별도) 매매가 : 28억원
- ☆.보증금 : 1억1천 월세 : 350만 매매가 : 6억7천

### 전원주택

- ☆.광산구 오운동 대지 : 322㎡ 건물 : 95㎡ 매매가 : 5천만원
- ☆.광산구 오운동 대지4,926㎡ 건물 : 66㎡ 매매가 : 2억3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한재골 대 : 1,330㎡건 : 60㎡ 매매가 : 2억8천만원
- ☆.담양군 수북면 공산리 전원주택단지 내 대지654㎡ 매매가 : 1억2천8백만원

### 대지.전답.임야

- ☆.치평동 대지 : 370㎡ 매매가 : 13억5천
- ☆.북구 운암동 프린스호텔옆 35M도로접 대지 677㎡ 매매가 ㎡당 3백만원
- ☆.암촌동 정학촌마을대 : 3,600㎡ 매매가4억9천
- ☆.광산구 옥동(평동)주거지역 1,438㎡ (원룸적합) 매매가 ㎡당 20만원
- ☆.광산구 우산동 279㎡ 매매가 4,200만원
- ☆.장성남면 임야 : 13,500㎡매매가 : 4억5천만원

### 무인모텔

- ☆.광산구 우산동 무인모텔 대183평 건500평 객실 32개 매매가 15억5천만원,

062-374-5945

010-3162-4989

#### 금당 공인중개사

### ■감정가 이하

- 도곡운천 무인모텔 객실70 감정48억 대출30억 매도38억
- 쌍촌동 상가·목욕탕·주택 대지 111 건평 367 대출 5억 보증금 2억 3200만원 월세 798만원, 매도 10억7천
- 금남로 3가 대로변 건물중의 1층과 2층 109평 감정 15억8천 회사사무, 병원·의원 가능 가격은 협의의 바람
- 금남로 침압교집 대로변 땅 247평 중심 상업지역, 영업할 필 공시지가 13억 투자1억7천 출을 18억
- 충장로 5가 수곡리대지27 공시지가1억9천2백 매도 1억8천
- 광산구 우산동 대지185 건평624 감정15억4천 임대면적은 전세5천만원 월560만원 대출5억5천 매도9억3천
- 유촌동 땅 1632평 창고 350평 공시지가 14억2천 매도21억
- 금남로5가 대로변 대지496 건평372 공시지가53억2천 임대사업에 적합 매도 53억원
- 화순 이양면 소재지 국도변 주거지역 596평 창고·공정적합 대출5천5백 공시지기에 매도8700만원
- 금남로5가 대지80 건평300 공시지가 13억3천 매도11억5천
- 동구 수곡동 상업지역 282평 오피스텔,원룸,다기주택적합 공시지가 6억8300만원 매도5억2천만원
- 광산구 주유소 5470 대출7억 금리8억9천
- 대인동 계림사점옆 4차선도로 상업지역372 건평435 공시지가 25억7천만원 매도13억3천만원
- 금남로4가 대지96 건평322 공시지가 매도16억
- 대인동 버스도착식당 대지63㎡ 공시지기에 매도 1억3400

### ■매도·교환

- 화순군 동면 서성이 별장촌 250평 경관중음 1억7500
- 남평읍 교원리 버스도로접 211평 주택과공장 1억6천
- 사할부지, 북구 덕의동 광주역 부근 1840평 4억8천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